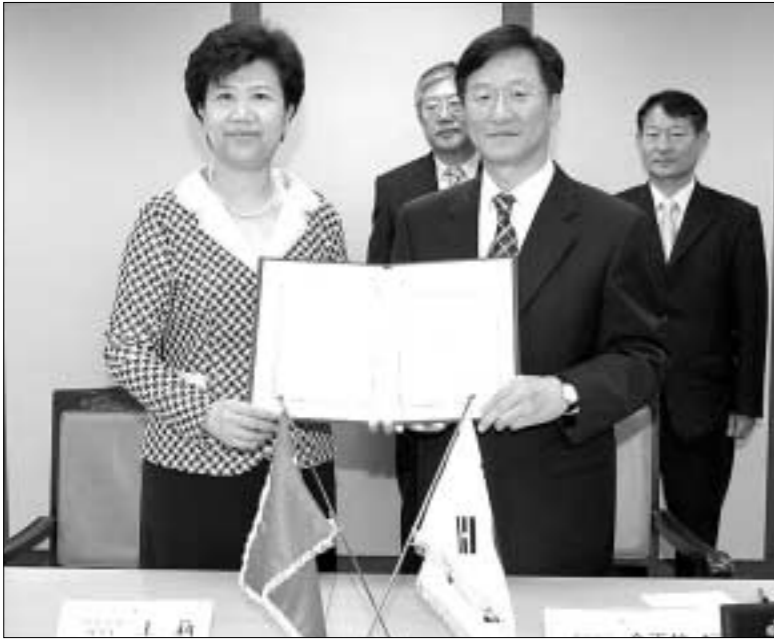


경제무역교류와 협력 전개키로 協議

의정부시, 중국 하얼빈시 우호교류 의향서 맺어



의정부시가 중국 하얼빈시와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은 양시 부시장이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하는 기쁜 순간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중국 하얼빈시와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6월5일 오전11시 왕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하얼빈시 대표단이 김문원 시장을 예방하고 양시 간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에서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고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어서 양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된 내용은 양시 공무원이 상호 방문하여 이해와 우정을 공고히 하고, 양시 간 발전과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한다. 또한 양시는 경제무역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점차적으로 과학기술, 문화체육, 체육보건, 도시건설, 관광 등의 영역으로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통해 한중 양국민의 우의증진에 노력하고, 양시는 여건이 성숙되면 정식으로 우호교류 협의서에 서명키로 했다.

의향서를 맺은 하얼빈시는 중국 흑룡강성의 성도로 인구가 970만명이고 면적은 66,579km이며 석유 등 천연자원과 산림이 풍부한 중국 동북부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이다.

하얼빈시는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지역에서 저격한 역사적인 장소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매년 1월 흑룡강면에서 개최되는 국제빙동계와 시베리아 및 백두산 호랑이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호림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大賞 경인칠방 양점모 씨의 『기-2007』

제37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심사결과 발표

제37회 경기도 공예품대전에서 『기-2007』를 출품한 양점모 씨(이천시 거주)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 촉진 및 상품화를 유도하고 민속공예기술을 전승하여 우수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이번 대전은

총 454작품(목·철 102종, 도자·섬유·과혁 29종, 기타 93종)이 접수되어 6월 4일과 5일 양일간 심사를 거쳐 대상을 비롯한 100종의 입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심사위원장인 홍익대학교 최승천 명예교수와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전통미, 독창성, 실용성, 양

상가능성, 상품화 적정성, 시장성, 기술(품질) 수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

특히, 영예의 대상인 이천시 양점모 씨의 『기-2007』은 나무의 무늬가 매우 아름답고 형태가 정중하고 그것의 본 멋을 최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것의 원형과 받침의 사각형이 합치된 조형미를 나타낸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출품 시·군 대상으로는 단체상은 안성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고양시와 성남시가 우수상을, 부천시와 이천시가 장려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전에 입상한 입상작에 대하여는 도지사 상장이 수여되며, 또한 특선 이상의 우수작품 44점은 제37회 전국 공예품대전

에 출품할 계획이다. 또한 입상한 100종 대하여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전시장에 전시하여 일반인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찰관은 민생안정에 최우선

의정부경찰서 6월중 확대간부회의 개최



의정부경찰서(서장 신정배)는 6월1일 2층 회의실에서 서장 및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와 근속승진 및 전입신교식을 개최했다.

먼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기동대 근무를 마친 뒤 의정부경찰서에 전입 온 경위 변기림은

이날 신고식후 신곡지구대로 배치됐으며 형사와 김경규 경장은 이날 경사로 근속승진하여 서장으로부터 계급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신 서장은 훈시를 통해 “경찰관은 민생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제2교육청 의정부시에 신축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위치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

경기도 교육청 제2청 신축 청사가 의정부시에 들어서게 됐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6월8일 제2청사 위치 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선정된 의정부시 금오동 행정타운 부지를 이전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2교육청이 들어설 부지는 의정부시 금오동 431-1번지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에세이온(CAMP ESSYONS) 5만㎡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2009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공사를 시작해 2011년 이전할 계획이다.

신축 청사는 4백여억원을 들여 연면적 3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가 교육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됐다”며 “전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 4개 자치단체로부터 청사 유치제안을 받아 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깨끗한 동네 만들기 위해 어르신들 앞장

의정부시 자금동 “우리 동네는 우리에게 맡겨라!”

거리에 흩어진 폐휴지, 빈병, 오물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결한 환경을 만들고 밝고 맑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의 어르신들이 환경 지킴이로 나섰다.

대한노인회 자금동 분회 18개 경로당 회원 130여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자금동 관내 철길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활동을 전개했다.

자극분화하는 평소에도 매일 월례회의시 노인강령 실천다짐 및 안전토의, 불면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회원들이나 회원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고자 지역에서 서예교육, 월2회 대청소 참여 등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동공원 가래울 마당 開場

녹지공간 확보, 주민여가선용의 장

의정부시 신곡동 추동공원 가래울 마당 및 중앙전변 소재 시민공원이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 및 주민여가선용의 장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6월5일 개장식을 가졌다.

신곡동 169-1번지 일원 추동공원 가래울 마당은 지난해 7월 공사를 착공해 올해 6월 완공됐다. 1천4백여평에 19억5천여만원을 투자 소나무 등 21종 7천여주를 식재했으며, 원형 파고라 등 15종 64점을 설치했다.

의정부부동 11-1번지 일원에 소재한 시민공원은 공면길이 360m, 면

적 5천2백여㎡에 5억7천여만원을 투자해 원터,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새로 조성했다.

특히 중앙전에 위치해 주민들이 산책로로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공원에 가이즈가향나무 등 6종 24주를 이식했다. 또한 사각파고라 외 25종 75개소, 산책로 360m에 황토포장을 해 산책로로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하다.

시는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5일 오후 4시20분 시민공원에서 개장행사를 개최하고 이어 오후5시 추동공원 가래울 마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식전행사는 의정부시무용단이 출연해 창작 북 공연을 실시했으며 식후행사는 공원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공원과 추동공원 가래울 마당은 앞으로 주민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 현충탑 참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6월6일 오전10시 수원시 팔달구 현충탑에서 삼재제 국회의원, 김문수 수원시장, 김진춘 경기도교육감과 유가족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추념식

에서 추도사를 통해 “오늘은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산화하신 남들과 함께 하는 거룩한 날”이라며 “남들의 충혼이팔로 오찬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며 추도했다.



의정부경찰서 현충일 추념식

의정부경찰서는 6월6일 제52회 현충일을 맞아 의정부시 자일동 소재 현충탑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애국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추념식을 가졌다. 이날 신정배 의정부경

찰서장은 “선열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뿐만 아니라 국민 각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해야 할 사명을 새롭게 하고 국민 전체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시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에너지 절약

의정부시 가능역 7개소 15조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의정부시는 시내 곳곳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



거 타기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가능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7개소 15조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엔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는 인터넷을 통하여 설치장소를

직접 신청받아 사전예약자인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실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주요 설치장소는 역, 터미널, 도서관, 봉사회관, 야스터 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자전거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전용도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에너지 절약 기반 구축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⑥

태평무

풍년과 나라의 태평성대 기원하기 위해 추던 춤

태평무는 1988년12월1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태평무보존회에 의해 서울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강선영(82, 태평무, 1988.12.1)·보유자(71, 태평무, 1993.8.2), 이명자(65, 태평무, 1994.4.1), 양성숙(53, 태평무, 1996.5.1) 조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태평무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유는 풍년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추던 춤으로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발동작이 다양하고 독특한 춤사위로 예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

제구성하여 추었던 춤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남녀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여 궁중풍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 주며, 춤장단은 진쇠, 낙궁, 태평림, 도살풀이 등으로 다른 춤장단에 비해 구성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장단의 변화와 함께 걸걸음, 잔걸음, 무릎들어 걷기, 뒷꿈치 꺾기 등 디딤새의 기교가 현란하면서도 조급하지 않은 절제미를 보여준다.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며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있는데, 이동안양의 춤은 서민적인 소박함과 귀족적인 정서가 혼합된 형태로 흥과 멋, 장중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강선영류의 춤은 엄숙함과 장중함이 배어 있고 율동은 크면서도 팔사위가 우아하고 화려하여 춤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태평무는 우리나라 춤 중에서 가장 기교적인 발자춤이라 할 수 있는 공연예술로서 민속춤이 지닌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세계에 걸출 만큼 예술성이 높으며, 강선영 예능보유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은 나이, 인정분야, 인정일임.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